

화순군, 전국 최초 다문화가족 자국민 전담팀 신설·운영



화순군이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족 자국민 전담팀을 신설해 국내 정착을 돕는 새로운 형태의 행정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 같은 화순군의 기민한 대응은 소통 불

능으로 현지 적응에 실패한 다문화가정에서, 이혼 요구·가정 폭력·아동 학대·잡적 등 사회문제가 날로 증가하며, 소외된 채 방치된 다문화가족에게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다고

팀 신설 3개월째 위기가정 5건 발굴...긴급지원 연계 "다문화가족 정착 돕기 위해 자국민 공직 채용 결단"

판단했기 때문이다.

화순군은 다문화팀 신설과 함께 외국국적 출신 결혼이민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가족 자긍심 고취 △애로사항 파악 △시책안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모니터링 △자조모임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작년 12월 4개국 출신 이민자 임기제 채용...다문화팀 신설

민선 8기 화순군의 다문화팀 신설에는 다문화가족의 서비스 추가수요를 예측한 구북구 화순군수의 적극행정 실천 의지가 결정적

으로 작용했다. 작년 12월 신설된 다문화팀은 팀장 1명에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일본 등 4개국 국적 출신자 4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 직무수행 체계를 갖췄다.

◆팀 신설 3개월 만에 위기가정 5건 발굴...긴급지원과 연계

팀 신설 이후 다문화팀은 △통역 26 △일자리 34 △복지정보 68 △국적취득 12 △결혼정보 6 △체류연장 7 △교육 2 △기타 38 등의 전화상담 191건과 △생활실태 파악 △병원 이용 등 통역서비스를 제공한 방문상담 25건의 직무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다문화팀은 5건의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긴급지원과 연계함으로써 팀 신설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이에 화순군은 4월 중 팀에 공무원 1명을 추가 배치하고, 중국국적 출신 팀원 1명을 채용하는 등 조직보강을 단행했다.

◆다문화팀 성공정착 비결...SNS 소통 창구 주효

화순군 다문화팀의 성공정착 비결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다문화어울림페스티벌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초·중·고학생 100원 버스 등 군정시책 4건에 대해 주 1회씩 홍보활동을 지속하는 것이었다.

한국어 안내장과 자국어(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일본·중국)로 번역한 번역본 등 2개의 안내장을 동시에 올리는 형태의 SNS(페이스북, 밴드, 단톡방 등)를 주요 소통 창구로 활용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곡성군, 희망복지 기동서비스 연계한 농기계 현장교육 실시

곡성군이 지난 4월27일 오곡면 명산마을에서 2023년 9차 '찾아가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는 매주 목요일마다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을 방문해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에는 5월에 있을 모내기철을 앞두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팀과 함께 농기계 현장실무교육과 농업기계 수리를 진행해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농업기계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농번기 시기인 만큼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자가 정비 방법, 농기계 사용 및 관리법이 실시됐다.

서비스를 받은 어르신은 "최근 농기계가 사고가 증가하는 시기에 유익한 교육이었고 경운기와 예초기까지 수리해줘서 감사하다. 이번 모내기철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혜영 기자

구례군, '집수리 교육 아카데미 2기' 운영

6월 14일까지 매주 1회씩 총 8회

구례군은 4월 26일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2층 교육장에서 '2023년 집수리 교육 아카데미 2기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수리 교육은 4월 26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6월 14일까지 매주 1회씩 총 8회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1기 수강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 횟수를 8회로 확대 운영하고, 도장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과 실습 교육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집수리 교육 아카데미 2기'는 지역 주민의 수요가 높은 기술 교육을 제공해 전문 기술 습득 및 자격증 취득을 돕고 관련 분야의 취업을 목표로 진행한다.

김순호 군수는 "앞으로도 꾸준히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교육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제공하여, 주민들이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담양군문화재단, 지역 카페 협력 프로젝트 '수다인가베' 추진한다

담양군문화재단(이사장 이병노)은 '너랑나랑 뛰어가는 연관문화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제5차 예비문화도시사업의 하나로 지역카페 협력 프로젝트 '수다인가베'를 추진한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수다인가베'는 지역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카페와의 협력을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연결과 연대를 키워드로 연관문화도시를 형성해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수다인가베'는 담양군 내 12곳의 협력 카페

를 거점으로 진행되며, 카페에 방문한 지역민과 방문객들은 QR코드를 통해 설문에 참여하고, 참여 후 카페 측에 완료 인증을 받은 선착순 1,200명에게는 각 5,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수다인가베'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협력 카페를 찾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중복참여는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도시추진단(070-8803-0742)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박종영 기자



'전국 최대규모' 나주시 통합RPC 준공

4곳 통합...총 사업비 210억원 투입·연간 최대 2만톤 생산

시간당 10톤 분량의 정곡(精穀) 생산이 가능한 전국 최대규모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나주시에 건립됐다.

나주시는 전남 동강면에 위치한 '나주시 통합 RPC' 신축 현장에서 나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주관으로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4월 28일 밝혔다.

통합RPC 건립은 지난 2021년 4월 남평·다시·마한·동강농협 RPC통합에 따른 나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에 이어 이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2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선정에 힘입어 추진됐다.

이 사업은 쌀 품질 향상과 수확기 농가 벼 판로 확보 등 우리 쌀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을 위해 가공시설 현대화, 벼 건조 저장시설 건립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5월 착공한 통합RPC는 국비 71억원, 도비 11억원, 시비 43억원 등 보조금 125억원을 포함해 사업비 210억원을 투입됐다.

부지면적 총 3만6586㎡, 건축면적 3666㎡ 규모로 시간당 정곡 10톤, 연간 최대 2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전국 최대규모 가공현대화시설과 쌀 8400톤이 수용 가능한 건조·저장시설을 갖췄다. 나주=송준표 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마일 포스코A&C